‘기생충’ 900만 관객 돌파

1000만 신화 달성, 신작들 흥행이 변수
문재인 대통령·김정숙 여사 함께 관람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3일 누적관객 900만 명을 돌파했다. 1000만 관객에 대한 기대를 키우지만 극장가 박스오피스 상황과 줄어든 스크린 수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월 열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제작 바른손이앤에이)이 관심 속에 900만 관객을 넘어섰다. 16일 호주 시드니국제영화제 최고상 수상 성과 등이 이어지면서 작품을 향한 관심이 지속된 결과다.

900만 기록을 달성한 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서울 용산CGV에서 일반 관객과 함께 ‘기생충’을 관람했다. 감독이나 출연 배우들을 따로 만나는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 직후 SNS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우리 일상에서 출발해 그 일상의 역동성과 소중함을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관심은 ‘기생충’의 1000만 돌파 여부로 향한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새롭게 개봉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4’과 막강 뒷심을 보이는 ‘알라딘’의 흥행으로 스크린 확보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또 7월이 시작되면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매주 이어지는 만큼 ‘기생충’의 상영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페더급 12위 정찬성의 반란 | UFC 파이트나이트 메인이벤트서 ‘세계 5위 모이카노’ 녹아웃

58초 벼락 TKO승 “할로웨이 한판 붙자”

〈현 UFC 페더급 챔피언〉

열세로 점쳐진 경기서 화끈한 파운딩 ‘초전박살’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선정 5800만원 보너스
상위 랭커 한 번만 더 꺾으면 타이틀전 가능성도

‘코리안좀비’ 정찬성(32·코리안좀비MMA)이 화끈한 TKO승으로 UFC 무대를 빛냈다.

정찬성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본 웰니스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154 메인이벤트에서 브라질의 헤나토 모이카노(30)를 1라운드 58초 TKO로 꺾었다.

이날 정찬성과 모이카노는 대회 메인이벤트를 맡아 5라운드 대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찬성에게 필요한 라운드는 단 1라운드, 그것도 채 1분이 필요하지 않았다. 강력한 카운터펀치로 초반에 승기를 잡으며 순식간에 경기를 끝냈다.

랭킹 12위에 올라 있는 정찬성은 5위 모이카노에게 상대적 열세로 평가 받았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뒤 지난해 11월에 가진 UFC 복귀전에서 야이르 로드리게스(브라질)에게 통한의 ‘1초 패배’를 당했다. 로드리게스는 현재 랭킹 11위에 올라 있는 선수로 모이카노보다 랭킹이 6계단 낮은 선수다. 이번 역시 ‘언더독의 반란’이란 평가가 나왔다.

경기 전부터 여러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찬성은 준비된 경기력으로 이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탐색전이 끝난 후 잠깐 튄 불꽃을 순식간에 큰 불로 만들었다.

가볍게 잽과 로우 킥을 주고받는 공방전이 1라운드 시작과 함께 진행됐다. 정찬성은 거리를 재며 들어오는 모이카노의 잽을 방어해내며 조금씩 타이밍을 잡았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본인의 의도대로 경기를 풀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이카노가 왼손 잽을 다시 한 번 날리는 순간, 번개같이 오른손 훅 카운터를 꽂아 넣었다. 모이카노는 뒤로 넘어지면서 정찬성의 왼손 훅까지 허용해 완전히 다리가 풀린 채 쓰러졌다.

상위 포지션을 점한 정찬성은 무차별 파운딩으로 ‘속전속결’을 노렸다. 모이카노는 몸을 구르며 파운딩을 방어하려 했지만, ‘코리안좀비’의 끈질긴 공격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끊임없이 얼굴에 유효타를 집어넣은 끝에 심판의 경기 중단 콜이 나왔다. 1라운드 58초 만에 끝난 완벽한 승리였다.

화끈한 경기력에 관중들은 모두 환호했다. 정찬성의 경기는 이날 UFC가 선정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에 선정됐다. 대전료와는 별도로 보너스가 지급되는데, 무려 5만 달러(약 5800만 원)의 가욋돈을 챙겼다.

이번 승리로 정찬성은 자신의 목표인 페더급 타이틀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섰다. 1~4위에 있는 상위 랭커를 한 번만 더 꺾으면 페더급 챔피언과 타이틀전을 벌일 것이 유력하다. 현재 UFC 페더급 챔피언은 미국의 맥스 할로웨이(28)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 정찬성(코리안좀비MMA·사진)이 2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본 웰니스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154 메인이벤트에서 헤나토 모이카노(브라질)를 1라운드 58초 TKO로 꺾었다. 스포츠동아DB

‘BTS’와 ‘아미’가 보랏빛으로 물들인 서울

22·23일 올림픽체조경기장서 글로벌 팬미팅
본 공연땐 시청·서울타워 등 보라색 조명 비춰
이틀째 공연은 인터넷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그룹 방탄소년단과 아미(팬클럽)가 서울 주말 밤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다.

방탄소년단이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글로벌 팬미팅 ‘5기 머스터 매직샵’을 열고 총 3만여 팬들과 만났다. 전 세계를 돌며 투어에 집중하느라 국내 팬들과 만남은 지난해 8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러브 유어셀프’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에 30℃가 넘는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앞서 15일과 16일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팬미팅 분위기와도 사뭇 달랐다.

이틀간 오전 8시부터 행사장 인근에는 국내 팬들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터키, 독일 등 전 세계 팬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저마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들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고, 손에는 포스터와 포토카드, 부채, 아미밤(공식 응원봉) 등 다양한 상품을 들고 있었다. 방탄소년단이 마치 슬로건처럼 밝혀온 “축제를 즐기자”는 말처럼 이들은 한낮부터 사물놀이, 길거리 단체 공연 등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오후 7시 본 공연이 시작되면서 서울 시내 곳곳은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서울시가 명예관광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을 위해 이틀간 서울시청 신청사를 비롯해 남산 N서울타워,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로 7017, 동호대교, 반포 세빛섬 등을 보라색 경관조명으로 꾸몄다. 앞서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도 둥근 구조물을 보라색으로 바꿨다.

또 23일 공연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또 한번 전 세계에 공개됐다. 입장권을 미처 구하지 못한 팬들은 인근 88잔디마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라이브 플레이’로 공연을 지켜봤다.

이날 주최 측은 부산 팬미팅 이후 암표 근절을 위해 티켓 구매자와 실제 관람자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이어갔다.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일부 팬들이 입장을 하지 못해 주최 측에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무대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7월6일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스타디움 투어를 재개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미팅 ‘5기 머스터 매직샵’이 펼쳐진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으로 팬들이 향하고 있다. 남산 N서울타워와 서울시청 신청사 등은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이 열린 22일과 23일 이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었다.(왼쪽사진부터) 뉴시스